

[MOOC] 서울의 도시계획 경험과 세계 도시개발에의 함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2016. 1. 30.

강명구
mkangcity@gmail.com

Week 1. 전지구적 급속한 도시화의 이해와 서울의 현대도시계획 태동
Rapidly Urbanizing World and Overview on Seoul Urban Planning Experience

[Urban Planning Module 3]

So, what is urban planning?

도시계획이란 무엇일까요?

What does urban planning do?

도시계획은 무슨 일을 할까요?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and corresponding goals.

도시계획의 목표는 크게 3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e overviewed the many problems it faces but it comes to the three major problems

도시가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도전들을 3 가지 중요한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One is the issue of poverty. The second issue is that of pollution and the third is that of inequality.

첫번째 문제는 가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염이고 세 번째는 불평등입니다.

So to reduce the poverty, we need growth and we ne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And to reduce the pollution, we need green development.

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친환경적인 발전을 해야합니다.

And to reduce inequality, we need more justice in the cities.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Urban planning is the framework and tool to make achieve these goals.

도시 계획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틀 입니다.

How to plan to address the key urban developmental challenges?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도시계획이 필요할까요?

We need to create, protect and enhance the commons such as natural resources, the climate, public health and safety.

우리는 자연 자원, 기후, 공공 건강과 안전 등과 같은 공동체적 기반을 만들고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And we also need to develop adequate urban assets including public space, infrastructure, the right mix of activities and people, adequate housing and so forth.

우리는 또 공공 공간, 기반시설, 사람과 활동의 혼합, 적절한 주택 등 적절한 도시공동체의 자산을 개발해야 합니다.

Both urban commons and assets are needed for people to live better and businesses to thrive.

공동체적 기반과 자산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과 일을 위해 필요합니다.

These are the typical questions of urban planning.

도시 계획의 전형적인 질문들이죠.

How to choose the urban pattern?

어떻게 도시 패턴을 선택 할까?

How to improve access and avoid congestion?

어떻게 접근성을 증대하고 교통체증을 피할까?

How to provide infrastructure and key services?

어떻게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주요 서비스를 제공할까?

how to build resilience and reduce climate risks?

어떻게 회복력을 기르고 기후변화의 위험을 최소화할까?

How to make a city safer?

어떻게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까?

How to address informality?

어떻게 비공식 부문을 해결할까요?

How can urban planning generate financial resources?

어떻게 도시계획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까?

how to allocate investment?

어떻게 투자를 할당할까?

How to create partnerships with citizens and private entities?

어떻게 시민 및 민간과 협력할 수 있을까?

And most importantly, how to know if we are making an impact?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을까?

This is one of the typical questions in urban planning regarding land consumption.

이 슬라이드는 토지 소비에 관한 전형적인 도시계획적 질문을 보여줍니다.

Suppose we have 1 million population and we can assume there are five people per household.

1 백만의 인구가 있고, 5 명당 한 개의 집이 있다고 가정하자면

Then we can have 200,000 households, which means we need 200,000 housing units.

우리는 20 만의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We can put in more assumptions but let me just explain the results.

몇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If we develop the city with four or five story building types of density then we just need 3 km radius and 29 km² area of city size.

도시의 평균밀도를 4-5 층 정도로 하게 되면, 반경 3 km, 면적 29 km² 의 도시용 토지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But if we develop the city with single detached housing low density patter, then we need 8 km radius and 220 km² area.

반면 도시를 단독주택 중심의 낮은 밀도 패턴으로 개발하면 반경 8km, 면적 220 km² 의 도시용 토지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So there is a huge difference depending upon the overall average density.

이것은 도시의 평균밀도에 따라 개발 면적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To make the city more compact the first thing we need to think about is the density.

도시를 더 압축적으로 만들려면 밀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Another important issue especially for the 21st Century is the walkable city.

21 세기 도시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걸을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We need to make the city more walkable.

도시의 일상이 걸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The picture on the left is Cheonggyecheon in Seoul.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서울 청계천입니다.

You can see that picture showing gathering, meeting each other and participating in cultural events.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합니다.

The citizens can access this place by foot or by public transportation

시민들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but importantly to make that possible we need the city to be more dense.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적절한 밀도가 기본이 됩니다.

For example, if the city's density is higher than 200

예를 들어, 도시 밀도가 200 명/ha 이상 이면

people can enjoy their daily lives by foot or on the bicycle.

사람들이 도보 또는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d Seoul's metropolitan area has about 270 population density

서울 도시지역 순밀도가 약 270 명/ha 이므로

so Seoul's citizens can commute or go about their daily activities without cars.

서울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이동에서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충분합니다. 차 없이도요.

We need density of at least 100 people per ha, then we can provide public transportation.

도시의 밀도가 100 명/ha 는 되어야 대중교통이 가능합니다.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provide public transportation.

밀도가 낮으면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Urban planning is a framework that helps citizens transform a vision into a reality using space as a key resource for development and engaging stakeholders along the way.

도시 계획은 시민들이 미래 발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며,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자원인 토지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입니다.

Urban planning is not about images but is a way to make a difference.

도시 계획은 이미지가 아니고, 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Urban planning helps to formulate medium and long term objectives that reconcile a collective vision
도시계획은 공동체의 비전을 조화시켜 중장기 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and organize the resources to achieve the vision.

그리고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해줍니다.

So the planning is the framework which begins with consensus building and leadership, on which we make a plan,
도시계획은 합의를 이끌어내 계획안을 도출합니다.

And based on the plan we produce an output such as land development pattern, public space, etc, which leads to better quality of life.

계획에 기초해서 도시패턴이나 공공공간 등의 결과물을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In summary we talked about the three goals and I added one more goal.

요약하자면 3 개의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여기 1 개의 목표를 더하였습니다.

The three goals are growth, green and justice.

3 개 목표는 성장, 친환경, 그리고 정의입니다.

But the issue is that these three goals sometimes conflict with each other.

하지만, 이 3 개 목표는 때때로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or example if we over-emphasize environmental protection

예를 들어, 우리가 환경보호를 너무 강조하는 경우에

it's difficult to provide low income housing in the right places.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제공이 어렵습니다.

So instead of emphasizing one aspect we need to keep a balance between the goals.

때문에 한가지 목표를 강조하기보다, 목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nd urban planning will harmonize the goals.

도시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Through planning, all its participants including government, private entities and citizens can collaborate to build the city right.

도시계획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들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습니다.